

# 신심만으로 살 수 없잖아요

인재불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어린 시절부터 인재를 육성하거나 유망된 인재를 잘 유지하고 재교육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현재 불교계에서는 육성을 위한 교육기관도 턱없이 부족하고, 활동가들에 대한 처우도 낮은 상황이다.

## #인재를 키워라...

**학창 시절 이웃 종교로 개종해서야**  
현재 불교계에는 동국대, 위덕대, 금강대, 중앙승가대 등 4개 종합대학이 인재 양성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2008년 문광부가 발표한 '한국의 종교별 현황'에 따르면 개신교가 설립한 대학은 49개, 천주교는 12개, 유치원·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현황을 살펴봐도 개신교는 285개, 천주교 211개, 불교는 133개에 불과하다.

이 조사에서 불교계 교육기관은 초등학교의 경우 서울에 한 곳 뿐이며 대부분이 서울, 경기, 부산에 편중돼 있다. 특수학교의 경우는 개신교가 21곳, 천주교가 8곳을 운영 중이나 불교는 한 곳도 없었다.

전문가들은 종합교육기관 확충이 개신교의 성장을 뒷받침했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학창시절이 평생의 가치관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종합 교육기관 부족은 인재 양성의

걸림돌일 수 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종교 활동을 하지 않는 이상 하루의 절반 이상을 활동하는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이웃 종교의 가르침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불교계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교육사업에 대한 관심이 차츰 늘어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이사장 성운 스님은 인덕원이 위치하고 있는 은평구에 불교계 유아교육기관을 설립,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2000년대 이후 은정 불교문화진흥원, 성준장학재단 등 많은 장학재단들이 설립돼 불교계 우수한 인재

## #인재를 잡아라...

### 턱 없이 낮은 임금이 발목 잡아

불교계의 젊은 인재 영입과 육성의 최대 걸림돌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임금이다. 임금개선을 요구할 경우 신심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특수성도 젊은 인재들의 유입을 차단하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종단의 활동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할 불교NGO에는 20~30대 활동가나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같은 단체에서 활동하는 인재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종단에 대한 감시와 대안 제시는 요

인 불교NGO들의 간사 초임 임금보다 30~40만원 가량 높은 수준이며 재정적으로 안정된 것으로 알려진 아름다운재단과도 비슷한 규모다. 재가연대는 이밖에도 가족수당과 호봉제를 시행하면서 활동가들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각 사찰의 종무원들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주요사찰을 제외한 일선 사찰의 이들은 대부분 4대 보험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조계종이 '나눔결사'를 실천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불교계에서는 말사 종무원들의 처우 개선 등 내부의 '나눔' 문제도 돌아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신심을 바탕으로 불교계에서 오래 활동한 인재들조차 떠나게 만들고 있다.

젊은 시절부터 다년간 활동을 해도 결혼과 출산을 앞두면 재정적 현실 문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면서 불교계를 떠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정웅기 참여불교재가연대 사무총장은 "근로여건 개선 등 체계가 잡히지 않으면 젊은 인재들이 불교계에 오지 않을 것이다. 임금이 아니어도 불교계가 가진 복지, 교육 등의 콘텐츠를 활용해 젊은 인재 육성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범 · 노덕현 기자

## “불교, 삶의 현장에서 모범 보여야”

윤승용 소장, 불교의 생활화·대중화 주장



“불교교리·간화선만으로 대중에게 접근하기는 어렵다. 승속이 협력해 삶의 현장에서 모범을 보이는 간접포교 방식으로 불교의 생활화, 불교 생활공동체를 확산시켜야 한다.”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소장은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가 3월 18

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개교 기념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사회의 종교 흐름과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주제로 발제한 윤승용 소장은 시대정신에 맞는 불교적 사회담론과 전문인력 및 대중조직 확보 등을 강조했다.

윤 소장은 “시대정신에 맞는 불교가 돼야 한다. 불교가 지속적으로 근대화할 요구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한반도 평화를 기원합니다”

민족공동체추진부가 3월 18일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화해와 공존을 위한 평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행사에 참가한 형금빛(27)씨가 “평화를 기원합니다”라는 메시지를 ‘평화나무’에 매달고 있다.

박기범 기자

## NGO단체, 각 사찰 사람 못구해 적정임금·근로환경부터 정비해야

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인재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은정문화재단의 이사 성호 스님은 “교육불사는 매우 절실한 부분임에도 이웃종교에 비해 매우 뒤쳐져 있다. 해방기에 급격히 늘어난 이웃종교의 학교법인에 현재의 결과를 낳았다. 불교의 미래를 위해 각 세대별 콘텐츠 개발과 직접적인 장학 수혜 등 교육불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할 수밖에 없다. 감시와 견제가 없는 권력은 더딘 발전을 보이면서 쇠퇴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불교NGO들은 내규에 따른 명확한 임금 규정 체계가 미흡하고 임금 수준이 낮아 젊은 인재영입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정도만이 구체화된 임금 체계와 규정을 갖고 있다. 재가연대는 대졸 초임 간사의 경우 월130만원 선에서 급여가 결정된다. 이는 일반적

## 특별기고

# 인재불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존재자)은 어느 것이나 그 조건을 충족하고 있기에 존재가 가능하다. 선하고 의미 있는 존재자의 이유만으로 존재가 가능하지는 않다. 불교도 예외가 아니다. 인도불교와 고려불교를 보라. 다르마의 승승함만으로 존재가 가능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존재자의 이유는 현실계에서는 '세력'이며, 이것은 '포교'에 의해서, 포교는 '교육'에 의해서 보장된다. 이에 대하여 만해는 <조선불교유신론>(1910)에서 이렇게 갈파하고 있다.

“조선불교의 유린은 세력이 부진한 것이 원인이다. 세력이 부진한 것은 포교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르친다는 것은 종교의 의무이며, 또한 세력이다. 그리고 발전의 원천이기도 하다.”

여기서 '가르친다는 것'은 교화(教化)로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은 교육적인 방법으로 포교에 연결 짓는 것을 일컫는다.

한국불교의 중흥(세력)은 포교와 교육에 의해 이루어지며, 전략적 귀결은 교육인 것이다.

이렇기에 한국불교 중흥의 조건을 단 하나만 들라면 필시 교육 곧 인재발사를 들 수밖에 없다. 이 교육의 대상에는 불교교단 전체를 의미하는 화합중(和合衆)으로서의 승가(출가자와 재가자)는 물론이고, 일반시민들까지 범주에 넣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재가자교육과 관련하여 유아 - 아동 - 청소년 - 대학생 - 청년 등의 차세대교육이 관건이라고 하겠다. 오늘날의 우리 불교는 차세대에 대한 교육과 포교가 무방비하게 방치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점은 매우 뼈저린 성찰을 요구한다.

법등을 밝히고 있는 이 땅의 사찰에서 불교유치(아)원은 있는 곳도 사라져 가고 있다. 인구 50만의 중형도시에도 불교유치(아)원은 한두 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어린이불교학교를 운영하는 도량은 과연 몇 곳이나 되는지, 불교학살회와 불교대학살회와 불교청년회는 또 어떠한가? 주지스님의 자애심과 관심아래 정기법회를 포함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조직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차세대조직은 희유하게 관찰되고 있다. 이 점이 한국불교의 가장 심각한 고민이라고 하겠다.

이 절박한 고민을 풀어갈 인재불사의 전략적 방향으로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첫째, 정확한 통계 확보에 기초한 정책 수립이다. 교육원과 포교원을 중심으로 차세대조직과 이들에 대한 교육현황을 매년 또는 격년으로 파악하고, 차세대 인재불사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교구본사와 말사에 대한 평가에 인재불사 항목을 비중 있게 취급하고, 주지스님 인사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특히 차세대 인재불사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중앙에만 의지하지 말고 교구본사별로 인재불사기금을 확충해야 한다. 교구별로 특색 있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차세대 인재불사 외에

도 우리 사회를 리딩해 나가는 불자 전문리더그룹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해 나가는 범종단적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국회의원을 위시한 정책결정체계에 불자가 적어 안타까워하는 것은 어리석음에 속한다.

우선 현재의 불자 전문리더들을 파악하고, 네트워킹하는 메카니즘을 만들어 템플스테이 예산 확보 운운을 사후 약방문식으로 하지 않는 실질적 작업을 지금부터라도 해나가야 한다.



박희택(불교아카데미 원장)

## [현대불교신문사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 ‘자비의 미얀마 돕기’



불자님들의 정성어린 후원금은 양곤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야기술통합대학교 건립, 식수부족 공동우물 파기, 신부출가식, 불자어린이 학용품 지원 등으로 전달되며 봉사단 현지 방문에 맞춰 후원물품도 직접 전달됩니다. 담당자 안내를 받으신 후 후원금 입금과 후원물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후원내역을 지정하실 수 있으며 봉사단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얀마문화원 02)733-5670 / 현대불교신문 02)2004-8214  
후원금 입금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로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근기를 없앤 활인참선 이 생애 깨달아 성불하는 참선

## 제 5차 참선대중화 선회 삼매체험 선 수련회 · 단기출가

### 활인선원 정진대 중 하안거 · 동안거 재가자 모집

공부 힘을 얻어 걸림없는 대자유인이 되어 세상의 주인공으로 산다.

모든 장애 속박에서 벗어나 해탈을 누린다.

물만 마시고 고혈압 당뇨병 성인병 난치병 퇴치 · 예방가능  
면역성 노화억제 해독 아토피 피부미용 생리연장 금연 금주 쾌차

부담을 없앤 단식, 금강단식.

바로 끊고 바로 먹는 뒤탈 없는 참선 단식

다이어트 1일 최고 3kg 청소년 대학생 일반

참선대중화선회 일정 (3일간) : 4월 8일(금) ~ 10일(일)

하안거 동안거 산철결제 일정	수련회 단기출가 일정	
하 안 거(음) 4월 15일 - 7월 15일(3개월)	3월 26일 ~ 3월 30일( 5일간) ~ 4월 23일(30일간)	6월 10일 ~ 6월 14일( 5일간) ~ 7월 9일(30일간)
가을산철(음) 8월 1일 - 9월 30일(2개월)	4월 8일 ~ 4월 12일( 5일간) ~ 5월 7일(30일간)	7월 8일 ~ 7월 15일( 8일간) 7월 22일 ~ 7월 26일( 5일간)
동 안 거(음) 10월 15일 - 1월 15일(3개월)	5월 13일 ~ 5월 17일( 5일간) ~ 6월 11일(30일간)	7월 29일 ~ 8월 5일( 8일간) 8월 9일 ~ 8월 13일( 5일간) ~ 9월 10일(30일간)
봄 산 철(음) 2월 1일 - 3월 30일(2개월)		

참선전문도량 행복제작소 산성맞춤 활인선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667-3 ☎ 1644-5266 / 070-7519-9929

네이버 카페 ▼ 활인선원